

「지하철1호선 연장건설」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37
----------	-----

발의년월일 : 2005. 2. 17.
제안자 : 김상섭 의원외 15인

1. 주 문

38만 사하구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및 서부산권 개발 관련 통행량 급증에 대비 신평~다대포해수욕장간 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의 당위성을 표명하고자 불임 결의문을 채택하여 구민의 결집된 의사를 관계부서 전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 재개발·재건축으로 향후 3~10년내 역세권 지역 상주 인구가 5만명 정도 계속 증가가 예상되어 유동인구가 급증할 것이고,
- 낙동강하구, 다대포 등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관광개발 잠재력이 풍부하여 관광객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편
- 남항대교, 명지대교 준공시 서부산권과 도심을 잇는 교통요충지역으로써 입지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어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하철1호선 연장건설의 시급성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함.

3. 참고사항

가. 38만 구민을 대표하여 결집된 의사를 결의문으로 채택 ▷ 별첨

나. 보낼곳 : 정부(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국회(의장, 건설교통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정책처장), KDI, 부산광역시(시장, 교통국장),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건설교통위원장), 부산교통공단 등

- 신평 ~ 다대포해수욕장 -

「地下鐵」號線 延長建設」을 爲한 促求 決議文

신평, 장림, 다대지구는 부산의 서남단에 위치한 산, 강,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서부산권의 중심지역으로서 부산 유일의 지방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하구, 다대포 등은 관광자원과 남항대교, 명지대교 준공시 서부산권 도심에 잇는 교통관광의 요충지역으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주민 집단거주지역 및 공단지역으로 삶의 질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하수처리장, 폐기물소각장 등 환경저해 업종 등이 산재해 있어 만성적인 교통난과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사하구에서는 2002년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관계 당국에 지하철1호선 연장의 타당성을 건의한 바 있음에도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안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서부산권은 동북아 관문으로서 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역할 수행에는 도시교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부산광역시 도시교통망을 하루 빨리 확충하여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하구 신평, 장림, 다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단지조성, 공단개발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크게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평·장림공단의 산업·물류수송을 위한 대형 컨테이너 운행 등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평, 장림, 다대지역은 교통의 오지로써 서민 대중교통수단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관광객 급증에 의한 교통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부산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해안으로 알려져 있어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월과 8월에는 약 18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을 뿐 아니라 평시에도 물운대의 일몰 경치를 즐기기 위해 부산시민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을 볼 때 지하철1호선 연장 건설은 어느 지역에 한정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에 기여한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지하철1호선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우리사하구의회 의원일동은 38만 구민의 오랜 숙원과 120만 서부산권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지하철1호선 연장(다대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 2. 23

釜山廣域市 沙下區議會 議員一同